

'책 읽는 도시' 구축 공로 시민 시상

전주시, 독서마라톤대회 독후감 수상자 15명

책 읽는 가족 선정된 7가족에 인증서 전달

전주시가 책 읽는 도시 조성 과 도서 관 이용 활성화에 앞장서온 시민들에 대한 시상을 통해 감사의 뜻을 표했 다.

전주시립도서관은 9일 완산도서관 강당에서 올해 '독서마라톤 대회'에서 우수 독후감을 수상한 학생과 시민, '2017 책 읽는 가족'으로 선정 된 가족 등 시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 및 인증서 전달식을 가 졌다.

전주시립도서관이 올해로 6년째 이 어온 독서마라톤 대회는 독서를 마라 톤에 접목시켜(책 1페이지=1m) 선택 한 코스를 완주하는 책읽기 사업으로,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전주 시 독서마라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했다.

특히, 시립도서관은 독서마라톤 대회 의 '독후감 공유하기' 코너에 참여한 총 238편의 독후감에 대해 전북문인협 회 회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공정 한 심사를 거쳐 초등부·중고등부· 성인부 등 3개 분야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15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.

우수 독후감 수상자는 △초등부 이승환(최우수상), 이세은·이정민(우수 상), 이진호·장성대·이기은(장려상) △중고등부 염혜원(최우수상), 차병 철·백모민(우수상), 이지연·조선 우·황지혜(장려상) △성인부 김나영 (최우수상), 이수아·한경희(우수상) 이다.

중고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염혜 원 학생(상산고등학교 2학년)은 "도 서 '월드'를 읽고 '주인공인 소로우

의 충고와 조언을 통해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 고, 고독과 개인적인 삶에 대한 새로 운 시각을 전해줬다"고 말해 높은 평 가를 받았다.

이와 함께, 시립도서관은 평소 완산 도서관을 이용하는 최한경 씨 가족 '2017 전주시 책 읽는 가족'으로 선정 된 가족에는 인증서와 함께 현판도 전달했다.

책 읽는 가족은 가족단위의 독서생 활 증진에 기여하고 도서관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주시와 한국도서관협회가 2002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가족 독서운동 캠페인으로, 올 한해 도서대 출량, 도서관 이용횟수, 도서관 이용 태도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 이용이 활발하고 모범적인 독서생활을 실천 하는 가족이 선정됐다.

완산구에서 선정된 가족은 모두 7가 족으로 △최한경 씨 가족(완산도서관) △류방희 씨 가족(평화도서관) △김혜정 씨 가족(서신도서관) △유

민영 씨 가족(삼천도서관) △이수연 씨(효자도서관) 가족이다.

이 가운데 최한경 씨 가족은 부부가 맞벌이인 관계로 완산도서관을 아이 들의 방과 후 공간으로 활용, 학교 수 업을 마치고 도서관에서 부모님이 데 리러 올 때까지 자유롭게 책을 읽도 록 했다.

평화도서관을 이용하는 류방희씨 가 족은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 예절 지 키기에 앞장서고, 어린이 특강 시 도 움 역할을 자처하는 등 다 가족회원 에 모범이 돼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 됐다.

박용자 전주시 완산도서관장은 "독 서환경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특 히 아이들은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독서를 생활화하 게 된다"라며 "앞으로도 자녀와 부모 가 함께 도서관에서 독서를 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서 의 생활화에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 /김민근 기자



당북초교 '참교육장' 준공

강당·식생활관 신축공사 완료... 창의인성 교육 공간

당북초등학교(교장 권영숙)는 최근 강당 및 식생활관 신축공사가 완료 됨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들을 초청하여 신축 강당(빛누리관) 에서 준공식을 가졌다고 지난 8일 밝혔다.

이번 준공식에는 주광순 교육장을 비롯한 내빈과 학생, 학부모, 교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강당과 식생활관 신축을 축하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.

그동안 당북초는 강당 및 식생활관 의 부재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급 식 제공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. 이에 숙원사업이었던 강당 및 식생 활관의 신축을 위해 학교와 지역인 사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으로 뜻깊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. 총 예산은 22억여원이 투입되었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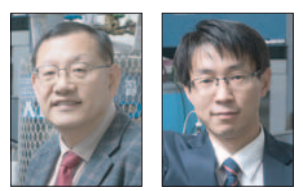
데, 2016년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건 축면적 676㎡, 연면적 1,018.7㎡의 지 상 3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 강당 (빛누리관)과 식생활관(참누리식생 활관)이 지어졌다.

올 11월말에 마무리된 공사는 특히 고효율 창호, 친환경 자재사용, 신재 생 에너지시설, LED조명기구, 태양 열, 태양광 등 에너지 절약 시설을 극대화해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인성 교육에 필요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 될 예정이다.

권영숙 교장은 "강당 및 식생활관 의 신축으로 첨단 교육환경과 자연 이 살아 숨 쉬는 참살이 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"며 "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참교육의 장이 조성되 어 매우 기쁘다"고 말했다. /이상민 기자

초고효율 고체 에너지저장장치 개발 성공

전북대학교 이종희 교수팀 세계 저널 게재... 학계 주목



전북대학교 이종희(사진 왼쪽)·김남훈 교수팀(대학원 BIN융합공학과·사진)이 미래형 스마트 자동 차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초고효율 의 고체 슈퍼커패시터 제조 기술을 개발해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.

미래창조과학부의 중견연구자지 원사업과 BK-21 플러스 사업 지원 을 받아 수행된 이 연구는 에너지 분 야 세계 최고 학술지인 '어드밴 스투드 에너지 머티리얼즈(Advanced Energy Materials)' (IF=16.721)의 최 신 온라인판에 게재됐다.

슈퍼커패시터는 전기자동차나 모 바일 단말기 등 다양한 전자장비에 널리 사용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 다.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출력을 주 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. 그러나 장치 내에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적고, 작동 전압이 낮다는 단 점을 갖고 있었다.

전북대 연구팀이 새롭게 제시한 기술은 이러한 기존의 슈퍼커패시 터가 갖는 여러 단점을 획기적으로

보완한 것이다. 3차원 니켈 폼 위에 계층적 다공 구조를 가지는 금속 수산화 나노와 이어의 합성과 연속적인 유휴화 과 정을 통해 아연(Zn)-코발트(Co)-황 (S)을 합성하고 이를 전극 소재로 활용했다.

이 슈퍼커패시터는 고효율을 내 면서도 기존의 난제들을 완전히 해 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. 기존 소재에 비해 제조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용이하며, 특히 고체 상 태이기 때문에 운반이 쉽고, 유연 해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어 다 양한 전자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 다.

또한 1만 회 이상 사용해도 출 력 성능이 93% 이상 유지되어 사 용 연한이 매우 길며, 높은 전력밀 도까지도 고효율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. /이상민 기자

이를 통해 이 소재가 리튬이온 2 차 전지, 연료전지, 태양전지 등 다 양한 차세대 에너지 저장 및 변환 장치의 전극소재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전북대 교수팀의 이러한 우수 연 구 성과는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 자사업 지원을 받는 발탁무르건 연 구교수와 이초 박사과정생의 긴밀 한 협력으로 이뤄졌으며, 매주 갖 는 지도교수와 연구원 간의 창의적 토론을 통해 새 아이디어가 도출됐 다. 연구팀은 이번 연구 성과를 응 용한 다양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 행하고 있어 근시일 내에 더욱 우 수한 연구 결과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이종희 교수는 "이번 연구 결과 로 미래 스마트자동차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핵심 기술인 에너지 저장 장치를 보다 성능이 뛰어난 서도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는 기 반기술을 마련했다"며 "고효율 차 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상용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를 갖는다"라고 밝히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 봤다. /이상민 기자



도교육청·호원대 학생안전 맞손

전북도교육청이 호원대학교와 응 급처치교육 무상 지원 등 학생안전 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8일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강희성 총장은 학생 안전의식 및 응급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과 호원대에서는 도내 농어촌학교를 방 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▲응급처 치교육 지원 ▲각급 학교 안전교육 자료 지원 ▲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.

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은 한국가스 안전공사, 전북교통문화연수원 등 안전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심폐소생술(응급처치), 교통 안전, 가스안전, 물놀이 안전 등을 주제로 '찾아가는 안전교육'을 실시 하고 있다. /이상민 기자

www.jbe.go.kr

전라북도교육청

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

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

14살 소녀들

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.

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.

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,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.

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.

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.

따뜻한 학생들이 있어
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.

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

가난은 학교를 행복은 교육입니다

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(최수빈, 배은서, 박민지)은 호주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.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,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. 이 따뜻한 인성은 5월 25일,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.